

교성곡으로 부처님오심 찬탄

‘다시 나를 바라보며’ 9일 세종문화회관

‘육바라밀 행을 통한 내 마음...’ 10일



▷ 불교음악 CD출반기념으로 봉축음악회를 여는 정부기 교수.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음악회가 있다. 9일 열린 정부기 교수와 정부기 교수의 합창과 중창, 협연, 교성곡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부기 교수가

관현악단의 공동 주자로 9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는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의 불교음악 CD 출판 기념으로 기획됐다. 합창과 중창, 협연, 교성곡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정부기 교수가

합창·관소리 ‘양면불’·교성곡 ‘붓다의 노래’

극형식 산사결혼식에 사물놀이·무용 등

최근 내놓은 두개의 음반(붓다의 노래, 다시 나를 바라보며)에 삽입된 ‘이 밤을 어디서 쉬나’, ‘휴식’, ‘조국’, ‘그물결려 얹던 삶의 노래’ 등이 연주된다. 특히 이번 곡들은 효경(법안정사 주지) 스님이 가사를 지어 주곡을 받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시관현악단의 반주로 이동원씨

가 ‘밤비’를, 김문희씨와 문수현씨가 관소리인 ‘양면불’을 협연한다. 3부에서 펼쳐질 교성곡 ‘붓다의 노래’도 코리안필요케스트라 연주로 이번 음악회의 스케일을 웅장하게 꾸며주는데 한 몫 한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는 정 교수의 대표곡 ‘무상을 느끼고’로 장식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박정희씨를 비롯해 바리톤 박성규·김성범, 테너 이동원 등 가창력이 풍부한 신세대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내실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정부기 교수는 “법열을 느끼게 하는 효경 스님의 노랫말에 곡을 부치는 작업은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며 “창작의 고통이 뒤따를 때마다 불교음악을 만들어 부처님과 대중들께 바치는 작업도 수행의 연장이라 생각했다”고 기쁨의 도를 설명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10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재단법인 선학원 보광사와 삼보불교음악협회 공동으로 보광사 합창단 연주회 ‘육바라밀 행을 통한 내 마음 찾아 절로절로’가 열린다. 안병길씨(삼보불교음악협회 운영 위원장)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보광사 주지 스님이 치는 은은한 범종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서울시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보광사 합창단이 ‘바람부는 산사’를 비롯해 ‘지심귀명례’, ‘얼마나 닦아야 겨울 마음 닦을까’, ‘오늘은 기쁜 날’, ‘거룩한 삼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을 부른다.

극 형식으로 꾸며질 이번 무대의 제 1장에서는 스님의 주례로 산사에서 부부가 올리는 결혼식을 사물놀이와 합창, 무용 등을 등장시켜 축제 분위기로 승화시킨다. 휴식 후 다시 시작되는 제 2장은 이번 공연의 클라이막스다. ‘바람부는 산사’의 합창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썹인 산사에 노부부가 등장하면서 지장 보살님께 해탈을 발원하는 이종장 ‘해탈의 기쁨’을 소리높여 부른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지 스님이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르면서 108염주를 걸어준다는데 주요 내용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중창단과 영산법화사 합창단도 이번 음성공양에 출연해 무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정수사 꽃살문 부분. 관조스님 작.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중인 관조 스님이 최근에 출간한 <사찰 꽃살문>(솔 출판사/값 3만5천원)에는 조

14개 사찰 꽃살문 담아 관조스님, 사진집 출간

선 사찰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살문 사진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 돋보기를 대고 문 앞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다. 특히 이 책에는 꽃살문중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을 비롯해 기림사 대적광전, 정수사 대웅보전, 통도사 적멸보궁, 선암사 원통보전, 성철사 나한전 등 14개 사찰 꽃살문이 소개돼 있다.

‘진리로 향하는 문’, ‘극락으로 이르는 문’, ‘깨달음으로 열리는 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문의 의미를 되새기는데도 일조한다. 책 출간에 맞춰 스님은 국립청주박물관(27일까지), 광주시립박물관(5월), 국립제주박물관(6월), 국립춘천박물관(7·8월), 부산시립박물관(9·10월) 등의 일정으로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김주일기자

제5회 찬불가의 밤 개최

서귀포 연꽃합창단

제주 서귀포 연꽃합창단이 11일 저녁 7시30분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제 5회 찬불가의 밤’을 개최한다. 양경식 교사(삼성여고)가 지휘하는 이번 공연의 1부 순서에서는 ‘스스로 밝은 곳에’, ‘당신의 미소’, ‘영

문화소식

대’ 등을 부른다. 이어 2부에서는 ‘초파일 송가’를 비롯해 ‘성불하십시오’, ‘노래같이 좋은 것은 없네’ 등을 음성공양 한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서는 서귀포 명성어린이집의 사물놀이와 신은숙 장학국원장의 대금산조 연주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011)697-0155.

문화명상교실 열려

달마선원, 12·13 이틀간

예술과 명상을 통해 참선을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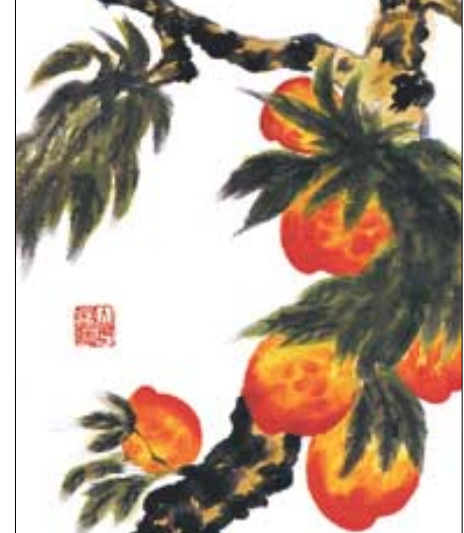
있는 문화명상 이벤트가 마련된다. 속리산 달마선원 선문화예술원(원장 범주 스님)은 12·13일 양일간 ‘문화명상 교실’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명상선 마음을 열고 발심할 수 있는 범주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음악과 춤을 통한 동적인 명상, 참선과 비파사나 등의 정적인 명상, 자연 감상과 산행을 통한 침묵의 명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 다음날에는 범주 스님의 지도로 선묵화 그리기 체험을 하며 동해소리 전수자인 종산 스님의 지도로 북과 소리를 통한 명상(동해의 소리)배우기 체험을 한다. 참가비는 5만원. (054)535-0378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m 불교텔레비전 <ch 32>
06:00 뉴스	09:10 20 재미있는 경전공부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0:15 12:20 한국의 명화
15:05 음악의 마을	11:10 08:20 한국불교의례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12:10 10:00 btm주간뉴스
21:05 경전공부	13:15 15:10 혜거스님의 신심명강의
23:30 BBS 초대석	14:15 20:40 생활건강캠프
24:00 한밤의 영상음악	15:15 09:30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하이라이프	
■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11월 17:10) - 중양승가대 김상영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 종합 매거진 ‘무명을 밝히고’에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출연, 우리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사찰문화 기행’을 방송한다.	
■ 불교텔레비전: △혜거스님의 신심명 강의(13일 15:10) - 혜거스님의 신심명 강의를 총정리 하는 시간. 선과 악을 가리고, 좋고 나쁜 것을 차별하는 분별심을 버리면 진여 법성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담은 신심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본다.	

지형스님, 대길상 선화전 10~14일

10년동안 길상도만을 화폭에 담은 지형 스님(서울 소림정사 주지)의 ‘육통자 대길상 선화전’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에서 열린다. 8화제를 맞이한 이번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의 ‘말(馬)’ 그림 위주에서 벗어나 연꽃, 복숭아, 학 등 간결하고 선(禪)적인 이미지로 화풍이 변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지형스님의 ‘3천 도화도’. 수리’와 스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백 마리 말이 동시에 달리는 모습을 담은 ‘대웅마도’ 등도 여전히 감상할 수 있다. (02)511-6210 김주일 기자

계미년 양(羊)의 해를 맞아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세 마리 양의 자태를 그린 ‘삼양개태(三羊開泰)’와 3천년만에 한번 피워 무병장수를 상징한다는 ‘3천 도화도(桃花圖)’ 등이 좋은 예이다. 2백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지형 스님은 양(羊), 용(龍), 거북(龜), 말(馬), 학(鶴), 봉황(鳳) 등 6가지 상서로운 동물을 갑골문자로 표현해 작품영역이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의 힘찬 비상을 표현한 ‘독

상서로운 동물·꽃·禪 이미지로 표현

가볼만한 전시회

귀산스님, 티베트 불화전 11~17일



▷ 귀산스님의 티베트 불화 ‘바르도의 오여래’. 티베트불화인 ‘탕카(Thanka)’는 불보살과 만다라를 그린 것으로 아름답고 정교하며 세밀하기로 정평이 나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우기도 그만큼 까다롭다. ‘탕카’의 기법을

9년간 인도 다람살라에서 익히고 돌아온 귀산 스님이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법원사내 불일미술관에서 ‘티베트불화전’을 갖는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탕카전을 몇차례 열기는 했지만 한국인이 전문적으로 배워 국내에 선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서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회에는 ‘칼라차크라 만다라’,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참제업장 35불’, ‘화이트 따라’, ‘영산회상도’ 등 60여점이 소개된다. 귀산 스님의 작품이 다른 ‘탕카’들과 차별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탕카기법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산회상도’는 국내 사찰의 어디서 인가 한번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이 익는다. ‘탕카’는 국내 탕화와는 달리 개인이 각자 자신의 방에 모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제작되기 때문에 전시회장에서 들어볼 때 큰 규모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02)733-5322.

‘칼라차크라 만다라’ ‘관세음보살’ 등 60점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인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팔모조립등

중 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